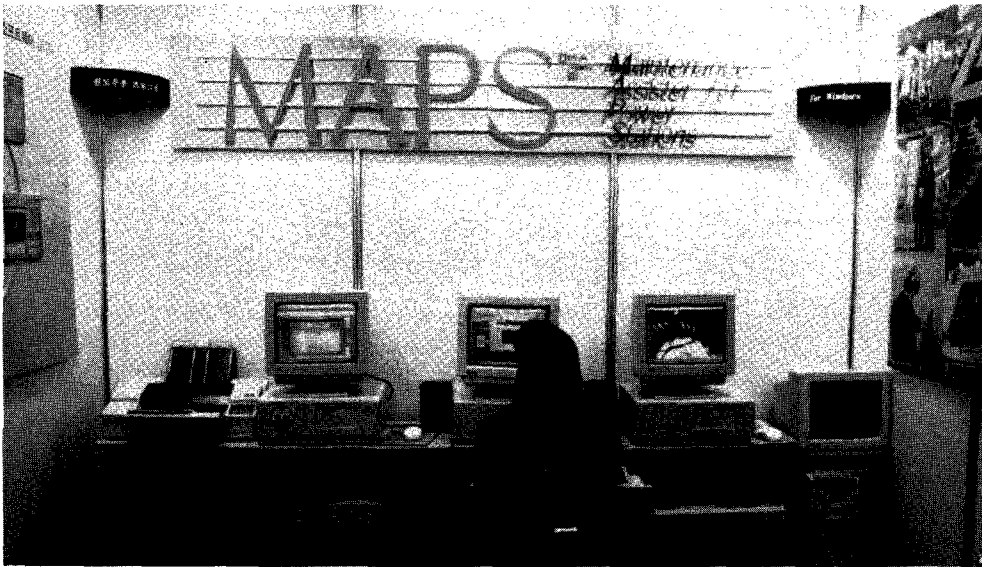


새해 새설계  
'95

한전기공(주)

## 정비기술의 기반을 확립



MAPS 시연장면

'90년에 즈음하여 전력 수요는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예상을 초월하는 증가추세이며, 특히 '94년 하절기에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전력수요의 사상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전력인들에게는 무덥고 긴 여름이었으며 기저부하 원인 원전의 안전운전과 신뢰성에 대한 시험시기였다.

이제 우리는 전력수요와 비례해서 증가되는 원전의 안전운전을 위한 완벽한 정비의 역할수행을 위해 설비의 양적 증가와 신형설비인 한국형 설비에 대한 정비기술 적용 요구에 따라, 축적된 정비경험의 체계화와 재정립으로 정비기술의 특화창조에 노력할 것이다. 한편 그간에 습득, 소화한 선진기술의 국내외 사업참여와 정비기

술 기반확립을 통해, 전력설비 안전운전 기여와 정비기술 도약의 발판을 구축하여, 신뢰와 안정속에 도약하는 한전기공의 새해를 설계해 본다.

### 고장정지 방지를 위한 정비체제 확립

'95년도 전력 수요는 설비증가의 제한 등으로 적정 전력예비를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보유설비의 철저한 정비를 통한 무고장 운전으로 가동률을 향상하여 극복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일관정비체계에 정비원의 책임의식이 부여된 책임정비 체제와, 정비의 사후 품질을 보증하는 Q·M 마크제, 정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가동

중 정비 및 일체정비 방법의 확대, 비상시 및 하절기 긴급정비 수행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전력대책 운영 등 정비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발전설비의 긴급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구비하여 전력수급 안정과 원전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정비기술 향상

정비분야의 기술은 지금까지 설비의 유지관리 수준의 답보상태를 유지하였고 체계적 관리유지도 미흡하였으나, 정비기술분야의 재정립 발전을 위해 기술자립 추진계획을 수립, 정비수행분야의 수행능력 평가와 향후개발계획으로 9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정비시장의 개방과 경쟁시대를 대비한 정비능력 구비로써 '95년에는 본 계획의 재평가 및 자립단계의 완료와 더불어 기술개발 계획 단계로의 전환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94년에 발족한 정비기술연구소 주관하에, 전문원의 축적된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연구원의 개발기술 접목으로, 정비기술의 특화라는 정비의 새로운 장을 창조한다는, 정비의 한국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정비관리체제의 선진화

한전기공은 그간 선진국의 정비체제에 적응하고, 그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비관리, 운영 등 정비관리 기법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96년부터 미국에서 시행예정인 RCM 제도에 상당한 인원을 교육시켜 왔다.

이와 병행하여 한전기공 자체적으로 추진한 정비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 그 효용성에 대해 국내외의 호평과 인정을 받았다. 또한 RCM 제도와 연계 운영을 계획함으로써 정비의 이력관리, 예측, 진단 등 기기관리의 효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전 전사업소에 전산장비를 배치하여 각종정비 자료의 입력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95년도에는 RCM 제도와 MAPS의 접목 기반조성 등 정비관리체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정비환경 개선

한전기공은 그동안 가동중인 원전의 정비업무 수행상의 제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도출, 개선하여 인력절감

및 공기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해 왔다.

작업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로 정비품질 및 작업의 편의성을 높여 안전과 피폭저감을 위해 '94년부터 시행한 원전정비 편의설비 개선 추진반을 운영하여, '94년도 기본계획인 개선대상 항목선정과 설계를 완료했다.

'95년에는 개선항목의 시공추진과 후속기 신규 설비에도 이를 적용, 정비능력 향상을 통한 설비의 안전성 확보와 신뢰성 제고를 통해 발전설비 가동률과 예비율 증대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 장비 자물관리체제 확립

정비의 3대 요소의 하나인 장비의 관리 운용은 장비의 품질을 결정하는 기본요소로서 특히 측정 공구기의 경우 주기적인 검교정이 법적으로 규정, 요구되고 있다.

이의 시행을 외부에 의뢰함으로써 검사기간 장기 소요와 운반과정의 손상, 문제점 발생시 긴급초치 지연 등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간 장비관리 기술습득과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94년 12월에 자율 검교정업체로 인증 지정받았다. 이제는 완벽한 장비관리 체제 구축과 효율적 운영으로 정비 전문장비의 완벽한 관리와 대상분야 확충에도 힘쓸 것이다.

### 선진기술 교류와 해외사업 참여확대

한전기공의 원전 정비기술은 설비의 유지관리와 직원의 수행능력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작사 보유의 고유기술 습득은 각종 기술용역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술습득의 한계에 부딪쳐 왔다.

이의 해결 방안으로 원전 주기공급사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자사(WITCORP)와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여 한전기공의 인정기술 인력의 협력사 수주공사에 참여하는 상호기술교류 지원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한전기공은 기술이전의 한계극복과 해외원전 설비 정비에 참여하여, 해외정비체제 습득 및 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개방과 기술경쟁력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해외사업 기반구축 및 확대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